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33회, 이사야 53 장

© 2024 마브 윌슨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사야 53장 33장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말씀을 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이사야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초월한 주요 주제와 강조점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학기 초에 그러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같은 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16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요.

우리 모두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16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좋아요. 오늘 저는 이사야 53장을 마무리하고 61장의 다른 종의 노래를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영성, 신학, 윤리 및 일부 종교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이사야서 전체에 흠뻑 젖어 있는 가장 좋아하는 본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들을 안내해 온 지속적인 것들. 우리가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던 다른 텍스트 중 일부. 그래서 오늘은 우선 그의 고난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53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즉, 명성, 그의 고난에 대한 저명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능력, 즉 주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마른 땅의 충격전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모호한 농민 가정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건축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푸른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왕족에게서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위엄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즉, 이 땅의 종에게는 세상의 존경심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의 외모에는 우리가 그를 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와 그의 동족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나사렛의 비교적 농부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의 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스라엘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계시를 전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양치기 농부들의 오합지졸 집단. 그리고 그들은 해부학, 생리학, 글쓰기, 피라미드 건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확립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는 제곱근으로 일했던 메소포타미아는 온갖 종류의 예술적, 시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고도로 문자화되고 문화적인 문명이지만 하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통받는 하인 모티브.

이 슬픔의 사람은 다음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대해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가 이러한 것들에 주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구성에서 주어 소유격이나 객관적 유형의 소유격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주어 소유격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는 사랑, 즉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인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객관적 속격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객관적인 소유격입니다.

여기서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그 자신의 육체적인 부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일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주요 분야가 서너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설교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치료하신 자들, 그분이 내쫓으신 악령들, 그분이 살리신 죽은 자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이러한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목적 속격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설립자는 속죄에 치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속죄를 순전히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유익한 치유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고통과 질병을 덜어주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속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죄로 인한 병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누르고 싶은지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그의 사역의 측면에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보는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흥미로운 점은 헤스터 파님(Hester
Panim)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30번 조금 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헤스터는 돌아서다라는 뜻이고 파님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이다.

얼굴을 돌리는 것은 흥미로운 관용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얼굴을 돌리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얼굴을 돌리시는 야훼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실망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어로서 하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사야에 관해 쓴 한 학자가 제시한 것처럼, 고통받는 종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종의 노래에서 두 번째 강조점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53장 4-
6절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선택된
신약성서에서 매우 강한 강조점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 특히 좀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대리 속죄로 발전합니다. VICAR,
대리자는 대리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뿌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리 속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나서서 대신하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이 고통받는 종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는 우리라는 단어를 찾으십시오.

진실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죄와 질병,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는 종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문을 붙잡고 있는 마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16, 17. 예수께서는 귀신들린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시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이사야서 53장 4절이 실제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조점은 우리의 질병에 있습니다.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 또는 모든 것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히셨습니다.

이것은 멜 깁슨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시작할 때 화면에 번쩍이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제 이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면서, 그가 어떻게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서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이 실제로 예언적으로 선포되었음을 지적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구약성서 자체에는 고통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메시아의 이름은 고통받는 종과 결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서로 연결하려면 기독교 전통과 신약성서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에는 인자가 있고, 메시아가 있고, 고난 받는 종이 있고,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종과 동일시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단어의 전형적인 정치적 의미에서 통치하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여 대중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정치적 지도자와 자신의 개인적 실존적 필요를 더 많이 동일시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 높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모든 사람을 능가하고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플랫폼이고 매일 70마일의 통근 거리가 있다면, 당신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면 그 문제에 크게 앞장서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다지 동일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면 대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지방을 잘라내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다른 후보자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 아래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가 고통받는 종을 원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표현을 보고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멜 깁슨은 자신이 피어싱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시편 22:16, 스가랴 12:10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을 우리의 죄악이나 범법 때문에 상한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6절에는 두 개의 평행 단어가 있습니다. 범법과 죄악. 즉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미크바 사람 요한, 세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자 요한이니라.

양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양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매우 쉽게 무기력하고 길을 잃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4장 4-6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4장은 목자들과 양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는 양 떼에서 길 잃은 자를 데려오지 아니하였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은 그들을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내 양들은 모든 산을 넘고 모든 높은 언덕을 헤매었습니다.

그들이 온 땅에 흩어졌으나 찾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90년과 9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러므로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표현된 대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각자 자신의 길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길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레위기 16장의 욕 키푸르(Yom Kippur)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강조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일년 중 가장 성스러운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6장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네 번이나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단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일부에는 염소 두 마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진영 밖으로 끌려나갔고 결국 유다 산 중 한 곳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16장 21절) 대제사장은 염소 아사셀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악함과 반역을 고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안수는 모세에게 후계자가 있을 때 성경에서 처음 시작되고, 여호수아는 안수를 통해 위임을 받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스미카(Smicha)라는 단어는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으며, 사역에 대한 안수식을 의미하며, 초대 교회가 사역에 안수식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신앙 공동체 내의 매우 초기 전통. 종종 이는 권위 여부에 관계없이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민족의 죄를 고백하여 상징적으로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되며, 염소는 광야로 보내질 것이며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그에게 맡기시거나 그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희생양의 사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고난당하는 하느님의 종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반직관적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거친 개인주의를 가지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엉망이 되어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조지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거친 개인주의. 기독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서서 구원하는 은혜와 사랑의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파다(pada)라는 놀라운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몸값을 치르다,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바로잡다 다른 사람을 위한 육체적 노력이든, 그들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누군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지불하든, 그 노력에 의한 감각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진이네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듯이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신약성서의 말씀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짊어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받는 종의 일을 예상하는 이사야 시대의 이 그림, 신약성서 신학은 이 모든 것을 구체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셨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형벌이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과 조화를 의미하는 샬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 흔히 평화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건강, 복지, 우정, 번영,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통합되어 건강하고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건강을 알 때까지 랍비들조차도 샬롬을 전능자를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인 별칭 중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조화롭고 완전한 웰니스 패키지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훌륭한 통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가져다주실 때까지 당신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언의 세 번째 주요 부분인 그분의 고난에 대한 체념(7-9절).

응, 내 생각엔 평행인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종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 죄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확실히 구약성서의 평행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헤셀이 어떻게 헤셀을 읽고 있는지 아시나요?

헤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헤세드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충성스럽고 변함없고 확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후렴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Heschel은 사랑이 중단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거나 얼굴이 돌이켜 더 이상 당신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전능자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단절이 있을 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은 그것을 중단하십니다. 그의 본성은 헤세드(hesed)로 특징지어진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일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연결을 끊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그분의 고난에 대한 포기는 그분 생애의 마지막 시간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곤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양털 깎는 자의 침묵 앞에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셔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가야바, 헤롯, 빌라도 앞에서 그분 자신을 변호하는 데 적용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속에서도 강조점은 침묵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12장부터 14장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희가 당신을 거슬러 하는 증언을 듣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총독을 크게 놀라게 하시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마디 비난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신약성경에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60, 61.

요한복음 19:8, 9. 그러므로 복음서 필자들은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도 12구절 중 이사야 53장 9절이 신약성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나 장입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에 대한 포기와 관련하여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환난과 심판을 받고 끌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처형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그분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갑자기 끊어지실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남자 상속자가 없으면 죽을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이는 비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자 상속자를 확보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읽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인과 함께 묘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병렬성을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빨리 읽고 아마도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을 지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언급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는 부자와 함께 그분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곳은 그분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평행법은 실제로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행법은 악인과 부자를 연결하는 9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주된 언급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 본문에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악인과 평행하기 때문에 부자는 어떤 면에서 악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부자가 사악한 계락을 써서 부자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세상을 떠났거나 몰락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독재자나 폭군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착유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국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악인은 적절하게도 그 맥락에서 다시 함께 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악한 것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부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개종한 세리였던 마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 작가들보다 돈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부자들은 종종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재물, 또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악했습니다. 돈은 당신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탐욕은 흔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장사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은 사물을 한정합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10절은 분명합니다. 몇 년 전 멜 깁슨의 영화가 나왔을 때 나는 몇몇 랍비들과 함께 패널에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로마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자 랍비는 음악을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문적입니다. 누가 못을 박았나요? 그는 '로마 군인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인도 관련됐나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읽은 신약성서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종은 그를 분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욕망, 계획, 즐거움, 사업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의인, 그의 하페즈, 그의 기쁨, 굽힘, 즐거움, 뜻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토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고난 받는 종과 수백, 아니 수천과 같은 대우를 받는 1세기의 일부 유대 학자들은 1세기에 로마의 손에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예수의 고난을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특정 시기에 로마 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의 일부입니다. 마사다의 메추다(Metzudah) 로 이어지는 경사로를 누가 건설했는지 잊지 마십시오 . 유대인 노예들은 73년 봄에 마사다를 함락시켰다.

70년 예루살렘이 티투스의 지배를 받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굶주리고, 노예가 되었고 등등.

기독교는 이 유대인 중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의 특수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를 1세기에 학대받았던 유대인 대중의 일부로 봅니다. 그에 관한 몇 가지 다른 점. 그러므로 그를 멀하시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 Heschel이 제공하는 최고의 내용 중 일부는 역설에 관한 우려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이 살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살인자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조차도 인간의 비극을 항상 간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관련하여 당신은 악을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했는지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히브리어 성경, 로마서 8.28. 최악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에서, 그 고통을 통해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계획보다는 고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히브리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신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신학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체론, HOLISM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삶의 파이 전체에 손가락을 가지고 계신다는 전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적으로나 극적으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섭리의 숨겨진 손으로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공개적이지 않고, 뒤에서 은밀하게. 아직도 역사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격려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단순히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그 해석은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비극 가운데서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는 항상 표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종의 삶이 있습니다.

아삼 (ASHAM) 이라는 단어는 속건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101장에서 다섯 가지 기본 제사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홀베르그 헌금, 속건제, 속건제. 물론 이것은 알려진 죄에 대한 것이었고 정의에 대한 보상, 실제로 불쾌한 당사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은 속건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레위기의 희생 세계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고통 받는 종 자신, 즉 속건 제물입니다. 이제 그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살펴보면 마지막 몇 구절에 변화가 있습니다.

속건제물로 여겨지는 그의 죽음을 통해 그는 결국 그의 후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세상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의 영감받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자손을 봅니다. 음, 우리는 그 자손의 일부입니다. 그는 메시아이며 우리는 메시아에게서 우리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어로 번역된 기독교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이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 되신 이 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부음받은 자와 연합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요한1서로부터 그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대문자 A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 나온 그분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는 그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사해 두루마리 읽기가 중요한 곳이 약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성경의 각주 읽기를 좋아하신다면, 사해 두루마리의 읽기가 우리가 이사야서의 특정 구절을 읽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음 주에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해 두루마리가 11B에서 그 줄을 읽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부활과 관련하여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빛은 시편 27편 1절에서처럼 행복, 구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빛이 죽음에서 생명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조되는 곳 중 하나는 하인의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 점점 더 긍정적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이 짧은 단어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게 한다는 것 또는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의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niv는 아마도 바울이 여기에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에 대한. 그리고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법의학적으로 헬라어로 회계 용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믿을 때 그것은 즉시 원장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의롭지만 오늘은 죄를 짓게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칭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옵니다.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미지는 위대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큰 자들 가운데 한 몫을 주리라.

그는 강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크리스터스 빅터입니다.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말하면 반대자, 즉 사탄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전리품,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이 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전리품이나 전리품을 나누고 용사들과 나누는 것처럼 그분의 종의 고통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비유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언어입니다. 그의 백성은 그와 싸우러 나갑니다. 이것이 신성한 영웅 기독론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분은 고난 끝에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사로서 그분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죽음뿐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그분은 승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받는 종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사야서에서 선정된 몇 가지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두 수업 동안 월요일과 수요일에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사야 53장 33회입니다.